

전남 중부권

“도요지 지속 발굴하고 역사성 알려야”

‘강진 고려청자 요지’ 국제 학술 심포지엄
“유네스코 등재 위해 체계적 계획 수립 시급”

전남도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고려청자 대부분을 생산했던 ‘강진 고려청자 요지(窯址=가마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를 바탕으로 요지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 요지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구조와 보존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논문을 통해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발굴조사는 200여곳 가운데 5곳(14기)밖에 조사되지 않아 중요성에 비해 조사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가마터의 효율적인 보존은 유적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요장(窯場)이 위치한 지형 등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배경에 맞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보존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요지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청자 요지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준 광주대 교수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진정성과 완전성은 얼마나 확보됐나 ▲민일 겹쳐져 있다면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무엇을 보충·보존·기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명품으로 알려진 고려청자를 생산하던

가마유적(窯址)이 집중 분포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일찍부터 알려져 지난 1963년 국가 사적 제68호로 지정됐고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강진군은 1997년 전국 처음으로 청자박물관을 개관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으며, 2010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올 6월부터는 발굴조사를 하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찾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나주 국악단이 최근 열린 주말 상설공연 ‘판’에서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10월 한달동안 매주마다 다채로운 예술문화를 무대에 올린다. <나주시 제공>

“나주 주말 상설공연 10월 가기 전 보러오세요”

나주시가 축제 대신 10월 한달 동안 여는 주말 상설공연이 관광객들로 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나주시 주관·나주예총 후원과 전문 예술극단 ‘에인방’ 연출로 열리는 주말 상설공연 ‘판’은 주말과 휴일을 활용한 진행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 신개념의 지역축제이다. ‘판’은 토요일은 금남동 야외 공연장에서, 일요일은 ‘홍어의 거리’와 선착장 등지에서 역사문화 전통성이 가

미된 예술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공연 ‘판’은 지난 6월 일주의 타악 공연 및 S-flava 비보이 공연 등으로 첫선을 보인 가운데 13~14일에 락 페스티벌, 힙합 댄싱, 국악공연 등을 선보였다.

특히 13일에는 ‘2012 다문화예술문화축제’가 열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국가 음식문화를 제공했다.

‘판’은 셋째 주에 평양민속예술단, 와인 제2 콘서트, 추어의 7080 등을,

넷째 주에 이화 챔버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CNS 금관 5중주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가운뎃주 기·나주역사문화 관광사건전·천연비누 만들기·관아체험이 진행되며, 봉송이 물들이기와 한방·치위생 상담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주말 상설공연 관람인증 도장을 받은 관광객은 황도돛배 체험과 나주 영삼테마파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g@

수학여행, 체험학습, 가족 캠핑에 골프까지...

‘강진 베이스볼 파크’ 종합 휴양지 각광

강진군 도암면에 위치한 ‘강진 베이스볼 파크’가 스포츠 시설 기반의 종합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2군 전용구장인 ‘강진 베이스볼파크’는 프로야구와 사회인 야구는 물론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가족 캠핑, 골프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는 4면의 야구장을 비롯해 실내연습장, 파3 골프장, 캠프장과 함께 펜션 5동,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19일에는 프로골프 최경주의 모교인 완도 화흥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실시된다.

파3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골프의 규칙과 예절, 경기 방식 등을 비롯해 넥센 2군 프로야구단 참관, 야구 체험, 갯벌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다음달에는 목포 골프연습회가 주관해 9개 시·군 120여명이 참여하는 파3 골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강진 베이스볼 파크가

각광을 받는 것은 강진의 따뜻한 날씨에다 수려한 자연경관, 한국에 모여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진 베이스볼 파크 관계자는 “이곳은 다산초당, 백련사 등 강진의 관광지와 가까이 접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수학여행, 대학생 수련회 등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휴양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작가 이청준 타계 4주기

26일 순천대에서 학술행사 27일 장흥서 추모문학제

작가 이청준(1938~2008) 타계 4주기를 맞아 학술행사와 문학제가 잇따라 열린다.

순천대 지리산권 문화연구원과 장흥군은 오는 26일 순천대에서 이청준의 문학세계를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회진면 진목리 묘소 ‘이청준 문학지리’에서 추모행사와 함께 작은 음악회의 문학제가 열린다.

이날 문학제는 순천대 문학과 학생들의 소설극 ‘당신들의 천국’이 울려지고, 장흥 회진 출신의 국악인 조현정의 관소리, 가수 백자의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문학제의 하이라이트는 소설 ‘눈길’의 복원 현장을 탐방하는 순서로, 이청준 문학을 음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청준 문학제가 열리는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은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과 문학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서정을 그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 출신인 이청준 작가는 1965년 사상계 신인상에 단편소설 ‘퇴원’으로 등단해 ‘당신들의 천국’, ‘병신과 머저리’, ‘선학동 나그네’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담양 여경들, 전·의경들과 멘토-멘티 결연



담양 경찰청(서장 민성태) 소속 여성 경찰관들로 구성된 동아리인 ‘죽향골 오누이’는 지난 16일 전·의경 대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여경들(멘토)과 전·의경(멘티)간 소통의 장을 마련, 정서 안정과 감성을 순화하고, 복무시 애로사항을 사전 발굴해 복무규율 위반 및 자제사고 없는 전·의경 복무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민성태 서장은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의경 대원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담양 무정면 종합정비·고서면 공동문화마을 농촌개발 사업 선정 72억 확보

담양군 2개 신규 사업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고서면 동운마을 공동문화조성 사업이다.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원과 지방비 등 21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귀농·귀촌 지원센터, 복지회관과 건강관리실, 소공연장 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이 될 ‘센터빌리티 무정관’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해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시설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다목적 구장, 체육단련시설, 지압산책로 등을 갖춘 역동적 활동공간이자 교류와 소통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의 녹지공간을 연계해 ‘솔지 둘레길’과 마을 소공원 조성, 문화재 주변 정비와 간판정비 및 리모델링 등 무정면 지역의 경관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고서면 동운마을 공동문화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육시설 보강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만든다.

담양군 관계자는 “종합 정비사업을 통해 무정면 주민들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에게는 ‘농촌 아메니티’(amenity)가 살아있는 살고 싶은 귀농·귀촌의 거점 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축협 ‘해두루 포크’ 사업단 돼지고기 최고 30% 할인

산지 돼지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주축협 등 10개 축협이 참여한 ‘해두루 포크’ 브랜드 사업단은 돼지고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돼지고기를 10~30% 할인 판매한다.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두루 포크 사업단에 참여한 도내 7개 축협 11개 매장에서 돼지 뒷다리살 1kg을 25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삼겹살과 목살 역시 각 매장별로 최대 10~30% 할인해 판매하며, 소비자 시식행사도 병행해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98만 두)의 10%인 98만두이다. 돼지 산지가격은 110kg 기준으로 지난 5월 41만원을 형성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최근 27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100%...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융자...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100%...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융자...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100%...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융자...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